

山川은 依舊한가……

雉岳山行과 鐵馬山行

崔 光 烈

75년 5월 4·5일 雉岳山行

최근 國內外정세의 급변 내지는 정치권력행사의 지그재그 등으로 나는 극히 마음이 어지럽고, 불쾌하고 해서 근 2일동안 몹시 술을 마셨다. 최근 음주 도수를 週 2회정도로 하다가 봄이 되면서 무작정 들이키게 되었다.

生의, 사회의 不合理상태를 스스로 폭발시키는 작업이다. 몸도 후추어깨 타박의 신경통에 시달렸기 때문에 더더욱 술로 치료하는 거치른 방법을 취했다.

이러다가 5월4·5일은 山行친구들과 치악산행을 하고 말았다. 하고 말았다는 것은 떠나는 날 아침의 흐린 날씨도 날씨였지만 결코 장거리를 갈 생각은 없고 예정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홉시 東大門高速터미널에서 9時40分 출발, 원주에 닿은 것이 12시경. 닿아서 다시 신림동行 南行 버스로 40분, 마침 5일 시골장터의 풍경을 오랜만에 보았다.

上院洞의 골짜기를 따라 上院寺를 향하는 코오스를 택했다. 도중 계곡의 바위에 진달래가 滿發한 자그만한 岩石위에서 일행은 점심을 했다. 비가 내린 뒤라 물살이 풍부하게 흐르는 계곡은 우선 도시의 그동안의 답답증을 씻어주었다.

세시간을 깊은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계곡을 지그자그로 몇몇번이나 물을 건너며 서서히 상승하는 산길을 따라 山을 올랐다. 길이 가파르지 않고 점고(漸高)하는 코오스여서 주위의 火田村이나 길가의

두릅나무의 싹을 따며 피곤을 모르는 정경 속을 헤쳐갔다.

山이 겹겹으로 엮여 있어서 골짜기가 여러 방향으로 트여있어 深山의 기분이 완연했다. 마지막 南大峯아래에서 上院寺로 오르는 막바지에 가파른 곳이 있었으나 이곳에는 細竹굴뚝대라고도 하는 속칭 山갯대가 무성하여 무릎의 높이로 온 산등성이를 덮고 있는 풍경이 덕유산 山頂과 비슷할뿐 계곡은 좁은 편이나 험해서 좋았고 높은 폭포가 없는 대신 세찬 물결이 진동하는 메아리가 마음에 흡족하였다.

雪嶽山 12仙女蕩의 골짜기와는 대조적으로 넓은 폭이나 높은 폭포가 없는 대신 그윽한 맛이 있어 좋았다.

上院寺에 도착한 것은 5시반경, 젊은 남녀 등산객들이 많았다. 이날의 기상조건은 해가 저물자 갑자기 雨氣로 변하였다. 일행은 선두자의 노력으로 큰 방을 얻게 되어 즐거운 밤을 지냈으나 달도, 별도 없는 暗夜에 가볍게 술을 마시고 巫堂鬼神애기를 하면서 잠들었다.

上院寺는 정확한 기록이 없는듯 寺蹟木碑가 상해 있었으나 읽어보니 이력저력 1300년은 될 것 같다. 높이 千m 이상의 지대에 있는 절이다. 笄念禪師가 창건하여 고려, 李朝때에 증수했다고 하는데 기록이 정확치 않다. 本堂이나 그 앞의 전塔(四층)은 고려초의 것이 분명하다. 노폐한 건물양식과 돌이끼로 보아서 짐작이지만... 寺蹟木碑에는 佛紀 1천9백70년에 再修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 木碑도 받

침목이 썩어서 세월의 자취를 엿보게 한다. 그리고 두 그루의 桂樹나무가 있어 희귀하다. 한 3, 4백년은 됨직하다. 이 계수나무는 문화재의 대상이 됨직도 한데 절 전체가 시주가 없어 그 유지가 어려운데 두채의 법당도 부속건물도 남은대로 보수를 하지 않고 있었다. 上院寺의 높은 위치로는 사찰의 유래로 봐서도 當寺 주지나 신도의 힘이나 寺刹財産으로만 맡겨둘 문제는 아닌듯 하다.

절에서 남으로 트인 山岳의 경관은 별로 신기한 곳이 없고 밤이면 멀리 新林마을의 전기불이 보일 뿐, 치악산맥으로 둘러싸여 높은 산주름이 겹겹으로 보일 뿐이다.

일행은 몇채의 방을 빌어서 남녀 일행이 한방에 뒹굴게 되었다. 저녁부터 비가 내려서 캠핑차 왔던 젊은 등산객들이 모두 방을 얻어 드느라 누추한 방도 초만원이 이루어졌다.

아침 우중을 무릎쓰고 비로봉까지 갈 예정으로 험하고 미끄러운 길을 비에 젖고 비바람에 시달려야 했다. 한시간이나 가니 비는 가랑비가 되어 거센 바람과 함께 산봉으로 구름안개(雲霧)가 치밀어 올라와서 앞길은 10m를 더 볼 수가 있는 막막한 山行을 계속하였다. 그 사이에 능선에는 노란 팬지종류의 꽃이 만발하거나, 모래등성이라도 지나고 하여 길은 비교적 수월했다. 약 두시간을 더 걸어가니 山은 높고 비바람이 좀처럼 개이지 않아 모두 지쳐서 치악산정에서 下山하기로 했다. 밝은 날이면 남쪽에 비로봉, 동쪽에 향로봉의 3백50m의 봉우리를 눈앞에 볼 수 있을 위치에서 일행은 험한 계곡을 타고 하산하였다. 위험하고 까다로운 길도 없는 계곡을 내리 두시간이상이나 내려와서야 겨우 좁은 산길이 나왔다.

마을 뒷산으로 내려오자 비는 개이고 멀리 原州 시가를 볼 수 있으니 이때야 비로소 산을 돌아보고 내려온 山의 초록빛 푸른 물결을 쳐다보며 아침 일곱시부터 여섯시간이나 고된 시련을 당한 생각이 비로소 풀렸다.

우리는 홍양리 마을 국민학교 앞에서 버스를 타고 原州로 나와 原州驛에서 기차를 탔다. 車中에서는 단현의 南漢江 풍경의 묘미를 차창으로 보며, 龍門을 지나자 連休의 등산객이 몰려들어 車안에는 젊은 친구들의 음악과 노래로 메워지는 난장판이

계속되었다.

郊外線은 객차를 20輛이나 연결했는데도 승객은 차를 메워 어떻게 된 셈인가... 이렇게 많은 車輛에 사람 또한 폭주하니 그 이유를 모르겠다.

75년 3월25일(日) 鐵馬山行

오늘 등산은 지난 여름 白翎島에 동행했던 사업가 鄭모, 회사에 다니는 金모를 비롯 5男1女の 팀구성이었다.

行先地는 光陵이 있는 동쪽 鐵馬山을 택했다. 아침 9時半경 東馬場驛 정거장에 모였으나 지각이 있어서 10시반에 떠나는 버스를 탔다. 忘憂里 고개에 채 못미쳐서 동북쪽으로 굽어, 新乃里로 버스는 방향을 바꾼後, 이로서 佛岩山을 그리고 水落山을 西쪽으로 길게 바라보면서 버스는 한가한 시골길을 간다. 여기서 퇴계원까지의 民生의 風情은 양지바른 野山기슭에 南向으로 지어진 수많은 양계장이 늘어서 있는 점이다. 벽돌창고와 같은 큰 양계장이 대대적 규모로 여러 동업자가 몰려 이른바 양계단지지를 이루고 있었다. 그와는 불품없는 농촌도 도시도 아닌 마을이 장계원에서 끝난다. 이곳은 京春철도가 지나가는 철로변 마을이다.

여기서 東豆川쪽으로 통하는 먼 지역에는 소리산(蘇利山)과 철마산 줄기 사이에 大小 低山地帶에 큰 강과 들이 있고 주변이 모두 한 마을 單位로 들어앉은 곳에 山이 둘러쳐져 농작물이 풍부했다. 버스 길목의 長峴里일대의 마을과 光陵일대의 냇가 兩편의 마을은 말하자면 마을團地라고 이름 붙일 수 있었다.

이곳에는 李朝末 宮中에서 물러난 退官한 內侍들이 살았다는 古家의 마을이 그대로 존속되어 있고 앞 강변은 유원지가 형성될만큼 강바닥에 숲이 우거져 있기도 하였고 보트의 놀이터도 있었다. 光陵은 李朝 太宗의 墓所로 지금은 소리산아래, 墓域에는 陵의 보호림이 우거져 그 일대는 山에 나무가 있다고 할까.

鐵馬山의 들머리 마을은 농가와 농지의 比例로 보나, 농업개간의 기술면으로 볼 때 부유한 것이었다. 대체로 배나무의 과수원이 이로 토질상의 조건과 맞는 모양이다.

鐵馬山은 800m에 미달하는 능선이 긴 산이라는 것뿐 매력은 없다. 다만 등산코오스로 우리 一行이 택한 등성이 길이 한층, 두층을 올라갈 때마다 바위 마디가 자리잡고 있고, 그 바위새에 굵은 赤松이 상록의 잎을 자랑하며 굳건히 너댓그루씩 서 있는데다가 꼭 누가 닭아 놓은 듯 시골 농가의 큰 명석 만큼이나 넓은 빈 터에 낙엽이 포근히 깔려 있는 등 신기할만큼 아늑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었다. 꼭 山陵에 다락이 생긴 것과 같았다. 이러한 곳이 頂上까지 거의 열군데가 있고, 이 陵마디의 바위와 소나무 아래의 빈 터에 쉬고 오르는 묘미가 여간 흥미깊지 않다.

그뿐이다. 그리고 정상에는 갈대가 나부끼는 장관이 인상적이었다. 이날은 유달리 바람이 세게 불었다. 멀리 서쪽으로 서울을, 동남쪽으로 龍門山의 아직 눈이 흰 정수리를 바라보면서 남쪽으로 이어진 王鳥山을 가까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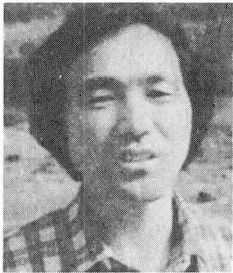
산에는 물이 없어, 일행은 골짜기를 내려와서 거

의 인가가 가까운 지대로 내려와 炊事를 했다. 1時경 산에서 불고기 중참을 하고 5時경에야 식사를 마치고 장현리 마을로 나온 것은 7時경이다.

서울 주변의 마을이라 그런지 歸路의 차편에는 손님이 비비적대고 있었다. 버스는 15분마다 있는데 꽤 사람들이 마을과 마을로 움직이는 모양이었다. 교통만은 사업수단이 돼왔다. 하여튼 서울에서 한시간 내외의 곳에 山에 싸인 이런 살기 좋고 안온하고 풍성한 마을이 있음을 지금껏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서울내기의 虛點이랄까.

한마디 덧붙여 둔다면 사실 끝없는 황야도 수천개의 고산준봉도 없는 좁은 대륙의 반도—— 그것도 38이남에 살면서 지금껏 수많은 각지의 山을 다녀보면 그런대로 우리의 江山이 나름으로의 묘미가 있고 人力으로는 감당 못할 그런 곳도 있었지만 오직 이 江山이나마 부질없는 인간들의 혼탁한 設事나, 국토개발의 곡괭이와 브르도자의 침해가 없기를 자연보호의 측면에서 말해본다.

〈반사경 48 페이지에서 계속〉



『개발사업을 꼭 막아주세요』 전교생이 31명인 基谷국민학교 斗吉분교 白南云 교사(38).

『산골 어린이들은 가난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斗吉분교는 南大川 바로 옆에 자리잡고 있었다.

『뱃달 전까지만해도 티없이 맑던 계곡물이 이 지경으로 못쓰게 되게 보기 싫어 운동장으로 나오기가 싫습니다』

白교사는 순박한 고향사람들은 환경오염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고 있어 더욱 애처롭다고 했다.

개발사업주들은 아무런 환경보호대책과 주민에

“「螢雪之功」교훈 이젠 아이들에게 못들려줘 환경 망치는 스키장·골프장 개발 취소해야”

돈이 없어 반딧불 빛으로 책을 읽어 위대한 학자가 된 晋나라 車胤의 이야기를 자주해주며 우리고장이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반딧불 서식지라고 자랑했습니다. 이제 「螢雪之功」이란 정신적 기둥이 무너져버려 가슴 아픕니다』

白교사는 반딧불 보호지역인 雪川에서 태어나서 雪川에서 자랐다.

3년전 자원해서 모교로 부임했다.

대한 피해보상도 하지 않고 동양최대의 스키장과 우리나라 최대의 골프장을 세운다고 공공연히 광고까지 하는 것을 보고 16년동안 걸어온 교육자의 길에 회의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왕 허가를 했다면 철저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엄청난 농약을 살포하는 골프장개발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白교사는 눈물을 글썽거렸다.